

#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교회와 최후의 것들, 세션 20, 영원한 상태, 영원한 처벌, 새 하늘과 새 땅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로버트 A. 피터슨 박사가 교회 교리와 최후의 것들에 대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세션 20, 영원한 상태, 영원한 처벌,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당신의 거룩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옛날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 당신의 말씀을 기록하신 것과 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를 비추어 주시고, 당신의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는 교회론과 종말론, 교회 교리, 그리고 최후의 것들에 대한 과정을 마치며, 다시 한번 요약적으로 영원한 상태를 소개합니다. 영원한 형벌은 중간 상태가 아니라 최후의 상태입니다. 지옥의 주인은 하나님이며 다른 사람은 아닙니다.

지옥에 대한 설명. 적어도 5개의 눈에 띄는 신약 그림이 있는데, 그 중 일부는 구약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둠과 분리, 불, 울음과 이를 갈기, 처벌과 죽음과 파괴.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저는 다원주의, 즉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라는 관점, 심지어 사후의 기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복음주의 신학자들과 성경 학자들 사이에서 그런 관점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한탄합니다. 저는 베드로전서 3장에 어려운 구절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4장에서는 다시 그 구절을 언급하지만, 맏소사.

어떻게 그것이 신학의 기초가 될 수 있을까? 그저 나를 슬프게 할 뿐이다. 아니, 죽음 이후에는 기회가 없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두 번이나, 내가 그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 말씀하셨다. 한 번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 말씀하셨다. 한 번은.

죽음 이후에 기회가 있을까요? 가장 강력한 구절은 히브리서 9:27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오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지고 한 번 드리지셨고, 죄를 다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간절히, 간절히 그를 기다리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두 번째 나타나실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오는 것이지 구원의 기회가 아닙니다.

구원의 기회는 이생에만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멸주의나 조건주의를 다룰 것입니다. 그것은 관점이고, 저는 가장 좋은 관점, 가장 좋은 복음주의적 관점을 제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믿고 있고,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원한 지옥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글쎄요, 우리의 좋아함과 싫어함은 우리의 정경, 옳고 성경적인 가르침을 결정하는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솔라 스크립투라여야지, 우리의 이성, 전통, 경험 또는 좋아함과 싫어함이어서는 안 됩니다. 신약성서는 지옥, 어둠, 그리고 하나님과의 분리에 대한 적어도 다섯 가지 그림을 지옥에 그려냅니다.

저는 구절들을 언급하고, 몇몇 훌륭한 몇몇 매우 중요한 구절들을 선택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저는 마태복음 8:12, 마태복음 25:30, 유다서 13을 언급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8:12, 마태복음 25:30, 유다서 13.

저는 복음서에 나오는 비유와 바울 서신에 나오는 비유 두 가지를 다루겠습니다. 마태복음 22:13, 연회의 비유, 결혼 잔치의 비유. 천국은 아들을 위해 결혼 잔치를 베풀고 초대장을 보냈지만 오지 않은 왕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훌륭한 식사를 준비했는지 말해도 그들은 오지 않을 거야. 왕은 분노해서 군대를 보내 도시를 파괴해. 그러니 주요 도로로 가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결혼 잔치에 초대해서 무료로 제공하도록 해.

그 종들은 길로 나가서 악하고 선한 사람을 다 모았으므로 혼인 잔치는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을 때, 그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친구여, 당신은 혼인 예복을 입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습니까? 그 남자는 말을 잃었습니다.

왕이 말했다, 그의 손과 발을 묶어 바깥 어둠 속으로 던져라. 그곳에서는 울부짖고 이를 갈 것이다. 많은 사람이 부름을 받았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기 때문이다. 그를 바깥 어둠 속으로 던져라.

ESV에서는, 그 곳에서, 괜찮은 곳에서, 울부짖고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3이 두 번 연속되는 것을 피하고 싶어합니다. 울부짖고 이를 갈게 될 곳에서.

우리는 울고 이를 갈기로 돌아가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외적인 어둠은 잔치의 빛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잔치에 참석한다는 것은 사랑, 교제, 기쁨, 서로의 교제, 나눔을 말합니다. 외적인 어둠에 던져진다는 것은 그 모든 것과 반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사랑, 기쁨, 평화, 나눔에서 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창조주로부터 거부당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참으로 끔찍한 운명입니다. 예수님은 게헨나라는 단어를 매번 사용하셨지만, 야고보서 3장에서 한 번 등장했는데, 그곳에서는 혀가 지옥에 의해 불타고 게헨나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다른 모든 말은, 예수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지옥 설교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경건하게 말합니다. 그는 무서운 설교자입니다

그는 전쟁을 설교한다고 합니다. 세상의 구세주는 사람들에게 지옥에 대해 경고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바울은 게헨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분노와 죽음과 그와 비슷한 다른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의 로마서 2 장에는 약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은 바울의 자리입니다.

그는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썼습니다. 그는 하느님께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 이하를 읽고 싶습니다.

이는 그들이 박해와 고난을 견디는 동안 굳건함을 보인 증거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증거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여겨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또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고난으로 괴로움을 받는 자들에게 값는 것을 공의로 여기십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는 심판과 축복, 언약의 저주, 언약의 축복, 정죄, 구원이 포함되며, 고통받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구제를 허락합니다. 주 예수께서 그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불타는 불 속에서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 야호, 복수를 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복적 정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얼굴에 주먹을 흔든 자들에게 정의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복수하십니다. 둘 다 같은 집단에 대해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섯 번째 그림에 해당하지만, 이것은 지옥의 첫 번째 그림에 해당합니다. 주님의 임재와 그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서, 그가 그 날에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경탄을 받으실 때입니다.

파괴로 돌아가겠습니다. 보복적 정의를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또한 다른 방식으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답장으로 대답할 것이다. 신은 당신을 괴롭힌 자들에게 고난으로 갚을 것이다. 악을 갚는 것은 보복적 정의다.

이것은 시정적 정의가 아닙니다. 오,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갈 것이지만, 신이 그들을 시정하실 것이고, 그들은 나올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연옥 개념은 죽어서 바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죄를 정화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소위 성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은 연옥이라는 곳에 가서 죄를 씻어냅니다.

바티칸 2에서는 그들이 연옥에서 죄를 속죄한다고 말합니다. 아, 저는 고개를 저을 뿐입니다. 개혁자들이 옳았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에서처럼 그리스도의 사역을 평가절하하는 것입니다. 아, 소위 3위 연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마 가톨릭 전통 교리에 따르면, 오직 가톨릭 신자들만 연옥에 갔고, 그들은 모두 나왔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간 곳이 아니었습니다. 칼 레이너의 익명의 기독교가 바티칸 2를 장악한 후, 모든 사람이 익명의 기독교인이 되었고, 희망적인 보편주의가 있었습니다. 하,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사람들을 그 가르침이 부인하는 지옥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임재와 그의 권능의 영광에서 멀어진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14장에서 하나님께서 지옥에 계시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분이 모든 곳에 같은 방식으로 계시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옥은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글썬요, 어떻게 맞습니까? 글썬요, 요한계시록 14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영광, 정의, 거룩함, 진노, 그리고 형벌 속에 있습니다. 여기서 악한 자에게 하나님의 부재는 그의 은혜, 자비, 교제, 그리고 구원의 부재입니다.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하자면 어둠 속에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저는 어둠과 분리를 함께 넣었습니다.

잔치에서 쫓겨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에서 분리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명확하게, 이것은 지옥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라는 일반적인 관념에 대한 좋은 증거 본문입니다. 그것은 사실이며, 올바르게 이해되었지만, 그것은 그림의 일부일 뿐이지만, 그림의 강력한 부분입니다

지옥은 불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소멸주의는 그것이 맞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주요 이미지이고 소비를 말합니다.

존 스토트가 말하길, 물건을 소각로에 던지면 어떻게 되나요? 소모됩니다. 성경에서 그런 예를 사용하나요? 아니요. 지옥불이 사람들을 삼켜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한다고 말하나요? 아니요.

몇 구절을 주고 몇 구절을 다시 다루겠습니다. 마태복음 18:8과 9. 마태복음 13:30, 40~42, 49, 50.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23, 24, 25, 28장. 그것은 최후의 지옥이 아니라 중간 지옥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불의 이미지, 불의 이미지는 변합니까? 중간 지옥에서는 고통이나 아픔을 의미하고 최후의 지옥에서는 멸망을 의미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르게 볼 것입니다. 한 번 더. 마태복음 18장, 8장, 9장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13:40~42, 49, 50. 예수께서 비유 몇 개를 마치시며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23, 24, 25, 28.

거기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중간 상태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그게 보여. 불의 이미지는 말해준다.

나는 이 불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중요성 때문에 세 군데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41.

당신은 우리가 양과 염소로 몇 번이나 돌아갔냐고 말합니다. 저는 그것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며 영원한 운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사과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 25, 46, 영원한 형벌로 가고,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것이 역사적으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일 구절입니다.

같은 형용사인 영원한은 영원한 형벌, 영원한 생명을 수식합니다. 사실, 당신은 때때로 아무도 영원한 생명을 제한한 적이 없다고 듣습니다. 글썄요, 사실 그것은 틀렸습니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그런 이상한 것들을 알게 됩니다. 요세푸스의 번역자로 알려진 윌리엄 휘스턴은 초기의 멸절주의자였고, 그는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영원한 형벌은 사악한 자들이 바삭바삭하게 타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지속됩니다.

조금 농담이에요. 영원한 형벌, 영원한 형벌. 사실, 그는 그들이 댓글과 그런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어요.

악한 자들은 댓글에 실릴 것이고, 나는 이것을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불타버릴 것입니다. 새 땅에서의 영원한 삶은 오래 지속되지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터무니없어. 해석의 역사 전체에서 아무도 내 최고에 대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 아니, 물론이지, 그들은 영생이 신의 생명이라고 말하잖아.

Eternal은 문자 그대로 오랜 세월을 의미하지 않나요? 네. 저는 그의 나이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EOS를 오랫동안 소유했습니다.

오, 그럼 영원한 형벌은 오래고 , 영원한 삶은 그게 맞나요? 네, 맞아요.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야 해요. I own EOS에서 표시된 나이는, 그리고 항상 영원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 아니. 빌레몬과, 나는 네가 빌레몬을 다시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들이자.

바울은 빌레몬에게 지금은 노예로서가 아니라 영원히 형제로서라고 말합니다. 그 맥락에서 그것은 그의 남은 인생 동안을 의미합니다. 물론, 저는 단지 시간과 나이의 길이만 나타냅니다.

그것은 보통 대화의 우주, 즉 즉각적인 맥락에 의해 제한된 나이의 일생에서 더 큰 것을 의미합니다. 다가올 시대의 맥락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계시록에서 영원토록 반복되는 하나님 자신의 삶으로 특징지어집니다. 영원한 형벌, 영원한 삶은 끝이 없지만 , 우리는 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예수의 왕이 돌아오심은, 저주받은 너희가 내게서 떠나라,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성경에서 그것이 무엇인지 말해주는 적이 있나요? 오, 맞아요. 오, 맞아요.

요한계시록 20:10은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말해줍니다. 악마를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속인 악마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는 불과 유향의 못에 던져졌고, 그들은 영원무궁토록 밤낮으로 괴로움을 받을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모호하지 않은 언어입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라 , 악마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요한계시록 20:10, 그것은 영원하다는 뜻으로, 밤낮으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소송 기각. 불은 그 맥락에서 소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4:10 , 우리는 이미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상 숭배자는 술을 마실 것이다. 구약성서의 이미지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 25장, 시편 몇 편, 내가 잊은 것 같다.

마지막 날에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그의 분노의 잔에 가득 부어 마실 것입니다. 그는 불과 유황으로 괴로움을 받을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는 불에 타버릴 것입니다.

아니, 아니, 그는 소모되지 않을 거야. 그는 괴로움을 받을 거야. 그 단어는 미안해, 고문, 괴로움을 뜻해.

그는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며 , 어린 양의 존재와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무궁토록 올라갈 것입니다. 아하. 멸절론자는 그들이 멸종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연기는 영원히 올라갑니다. 정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이 있는 곳에는 연기가 있습니다. 연기가 있는 곳에는 무언가가 타고 있습니다. 소비의 그림이 아닙니다.

세상에. 이걸 어때요?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무궁토록 올라가고, 그들은 낮과 밤을 쉬지 못합니다. 아시다시피, 멸절론자들은 , 오, 맞아요 , 그들이 존재하는 한, 당신은 당신의 이론에 맞게 성경에 덧붙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미안합니다. 저는 그것을 특별히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오, 저는 신이 말씀하시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것을 좋아하는 것은 제 인간적 본능이 아닙니다.

나는 신이 말씀하시는 것에 복종합니다. 내가 선택하든 선택하지 않든 말입니다. 나는 우리에게 여기서 조금, 조금, 조금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규칙을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의 심판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속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우리는 우리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오, 저는 이게 싫습니다.

글쎄요, 당신의 좋아하는 것을 신의 말씀과 조화시키세요. 당신은 정말로 당신만의 종교를 만들고 싶나요? 다른 하나는, 불의 이미지가 소모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끔찍한 고통과 영원한 고통을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제대로 말하면 울고, 그러면 설교할 수 없게 되니,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거야. 울고, 울고, 이를 갈고. 울고 이를 갈고는 흥미롭게도 불과 관련하여 사용돼.

마태복음 13:42, 50. 나는 돌아설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울부짖고 이를 갈는 것은 불에 대한 언급으로 사용 된다 .

그들은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질 것입니다. 거기서 울부짖고 이를 갈 것입니다. 그것이 소모처럼 들리나요? 아니요,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 것처럼 들립니다. 그들은 울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처할 수 없는 것, 불과 어둠을 다루기 위해 이를 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 22:13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를 던지고, 손과 발을 묶고, 그 악당을 울부짖고 이를 갈게 하는 바깥 어둠으로 내쫓으십시오.

여기서 연속성을 보나요? 네, 보셨죠. 마태복음 8:12. 마태복음 22:13.

마태복음 25:30. 누가복음 13:28. 그는 많은 울음과 이를 갈았다고 말하며 , 만약 누군가가 오, 이것은 문자 그대로라고 말한다면.

어둠은 문자 그대로입니다. 불못, 어떻게 어둠과 불을 문자 그대로 가질 수 있습니까? 어쩌면 당신이 그것을 작동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작동시키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4:51. 아무도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건가요? 지옥을 믿지 않으세요? 저는 지옥을 믿지만, 소위 천국이나 새 하늘과 새 땅처럼, 신은 그 천국의 경우 그림을 그려서 우리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우리가 완전히 상상할 수 없는 다른 세상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지옥에 관해서는, 그는 사진을 찍고, 누군가의 목에 맷돌을 던져서 갈릴리 바다나 사해에 던졌습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끔찍한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들에게는 그랬습니다.

어느 나이에나 끔찍한 불. 바깥의 어둠. 동굴 탐험가들은 지구 깊숙이 빛이 없는 곳으로 내려가면 정말 무섭다고 합니다.

그들은 너무 많은 빛의 근원을 가져와서 고갈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문자적일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4:51.

잃어버린 자들이 끌려가고 사분오열되고 조각조각 난다고 말합니다. 지옥에서 사람들이 조각조각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계속 그럴까요? 터무니없죠. 24:51.

무슨 일이야? 신이 우리를 겁먹게 만들고 있어. 그게 요점이야. 우리 세상의 흉포한 이미지, 뭐라고 생각하니? 다음 세상에서 진짜, 영원한 처벌과 고통.

육체적으로, 그들은 지옥에 가기 위해 일어납니다. 그 종의 주인은, 마태복음 24:50, 그가 예상하지 못한 날에 올 것입니다. 그리고 한 시간에, 그는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그를 조각내어 위선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두어, 당신이 추측했듯이, 울부짖고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 이미지는 특별히 문자적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지옥의 화학적 또는 물리적 측면을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옥은 현실이고, 영원하며, 끔찍합니다. 처벌입니다.

마태복음 25:46이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들은 영원한 형벌로 사라질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과 같은 단어, kolosis .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형벌을 몰아낸다. 하나님에 의해 지옥에 던져진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요한복음 5장, 그들은 심판의 부활로 들어올려질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끔찍하고 끔찍한 언어. 유다서 7장은 불에 대해 말하고, 처벌에 대해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4:10~11은 우리가 여러 번 보았듯이 끔찍한 형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멸절론자들은 죽음과 파괴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가정하거나 주장합니다. 두 번째 죽음은 존재의 멸종을 의미합니다 .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은 결코 멸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사형 선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멸종되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멸종되지도 멸종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죽음은 분리입니다. 그의 교제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자비로 인해 동산에서 분리되어 그를 내쫓았습니다. 그들이 영원히 존재하지 않도록, 우리는 그것을 정당화의 상태라고 부를 것입니다. 완전히 영광을 받지 못한 채, 여전히 죄인입니다. 좋지 않습니다.

육체적 죽음이란 무엇인가? 소멸? 아니, 그것은 몸과 영혼의 분리입니다. 영원한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불못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형벌이며, 하나님의 축복, 영광, 자비, 은혜, 교제에서 영원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반복적으로 한 번 이상 언급합니다. 20:10에 따르면 이것은 두 번째 사망, 불못입니다. 20:14-15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잠깐 언급했었습니다.

존 스토틀는 파괴가 말 그대로의 의미라고 주장합니다. 오, 어서, 존. 당신은 성경을 다루는 데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건 당신에게 합당 하지 않습니다 . 그리고 그는 심지어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것은 그가 주장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계시록 17장, 계시록 17장에는 두 번이나 아폴로시스 , 짐승의 멸망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저 구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7-8절, 그는 무저갱에서 일어나 멸망으로 갈 것입니다, 아폴로시스 .

Apollomi 는 동사이고 apollois 는 명사입니다. 11절, 존재했고 존재하지 않는 짐승은 여덟 번째이며 일곱에 속하고 두 번 멸망합니다. 박멸, 맞죠?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9:20에서 우리는 19장 20절을 읽습니다. 짐승이 잡혔고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짐승 앞에서, 짐승 앞에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을 경배한 자들을 속인 표적을 행했습니다. 이 둘,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유황으로 타오르는 불못에 산 채로 던져졌습니다. 짐승의 멸망은 계시록 17:8과 11에서 두 번 예언되었습니다.

19-20절에서 그들은 불못에 던져집니다. 20-10절에서 마귀가 그들과 합류합니다. 이것을 주목하세요, 그들을 속인 마귀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는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졌습니다.

악마, 짐승, 거짓 선지자. 그냥 악마에 대해 말할 수는 없어요. 동사가 복수형이고, 그들은 밤낮으로 영원히 괴로움을 받을 테니까요. 대명사가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네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요, 대명사가 없어요. Basanizo는 괴롭히거나 고문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로, 14에서도 쓰입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무궁토록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아무도 이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만해. 모두가 구원받는 건 아니야. 그런 걸 믿는 건 바보의 몫이야.

그리고 잃어버린 사람들은 마치 그들이 죄의 벌을 치를 수 있는 것처럼 더 이상 고통받지 않기 위해 멸종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구원의 관점에서 갚아야 할 모든 죄에 대한 벌을 치르셨습니다. 잃어버린 사람들은 영원히 그들의 죄에 대한 벌을 치를 것입니다.

나는 이 개념을 좋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는 우리만의 종교를 만들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분입니다. 새 땅입니다.

마지막으로, 새 땅입니다. 영원한 상태는 하늘에서 육체가 없는 영적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새 땅에서 부활한 전체론적 존재입니다.

성경 구절, 이사야 65:17. 나는 구절을 읽고 토론을 논의하는 것 외에는 할 일이 거의 남지 않았는데, 지금은 대체로 해결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명기 65장과 17장.

보라, 주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일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기뻐하고 영원히 즐거워하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되게 창조하고 그 백성을 기쁨이 되게 창조하리니. 이 말씀은 그 장의 끝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매우 노령으로 죽는다는 이미지를 사용하는데, 그런 종류의 것인데, 이로 인해 천천년설자들은 아하, 이것은 황금시대를 말하는 것이지 새 하늘과 새 땅의 백금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것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앞선 천년왕국입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그렉 비엘은 제 생각에 요한계시록 21장이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효과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새 하늘과 새 땅 이전의 천년 왕국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계시록 20장에서 바로 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 말합니다. 그것은 나무만큼 오래 살았다는 언어이거나,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은유적인 언어이지 문자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계시록, 이사야 66:22. 내가 만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남아 있을 것같이, 주께서 말씀하시되, 네 자손과 네 이름이 초승달에서 초승달까지, 안식일에서 안식일까지 남아 있을 것이요, 모든 육체가 와서 내 앞에 경배하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리고 그들은 나가서 나를 거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니, 그들의 벌레는 죽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들의 불은 꺼지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은 모든 육체에게 혐오스러운 것이 되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마가복음에서 영원한 형벌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인용하신 말씀으로, 바로 마지막 구절입니다. 사실,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에서 그들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의 마지막 구절에서 그들은 새 하늘에 대한 위의 구절을 가져와 반복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그렇게 부정적인 음조로 끝나도록 둘 수 없습니다.

글쎄요, 이사야의 예언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이걸 말하는 것을 잊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성경의 마지막 세 장, 마지막 두 장, 그리고 마지막 두 장 반은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20장 21절과 22절에는 지옥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보편주의가 진실이 되려면 보편주의와 소멸주의는 성경 이야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좌초됩니다. 선한 주님은 계시록 21장과 22장으로 끝을 맺으셨습니다. 계시록 23장에는 그런 다음 모든 사람이 도시에 들어갔다고 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말합니다. 아니, 계시록 23장은 없다고요. 악한 자들이 마침내 비참함에서 벗어나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두 장 반은 주제가 긍정적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어린 양에게 영광을. 하지만 그 모든 장에는 지옥에 대한 언급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취향이나 싫어하는 것에 맞게 이야기를 바꿀 수 없습니다. 이사야 66장은 내가 만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그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 간단히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보세요, 주님, 부자는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그는 아마도 잠언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언 에서 하나님은 주님의 길을 걷는 지혜로운 사람에게 번영을 약속하십니다. 아마도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무엇, 그들은 사람들과 함께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하느님께선 불가능해요. 모든 것이 가능해요.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따릅니다.

새로운 세상에서, ESV, 문자 그대로 재생에서, 사람의 아들이 그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른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 지파를 심판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재생에서라고 번역하지 않겠습니다. 같은 단어가 디도서 2장에서 사용됩니다. 그런데, 보통 재생의 교리는 그 단어 없이 가르쳐집니다.

개념은 주어졌지만, 여기서는 그 단어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주적 개념입니다. 새로운 세상, 재생, 창조의 재탄생.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 한 곳에서 그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 그저 또 다른 언급일 뿐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오래 전에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모든 것의 회복에 대해 말합니다.

최후의 사태, 새 하늘, 새 땅에 대한 또 다른 언급은 로마서 8:20-22가 가장 중요한 구절일 수 있습니다. 그런 표현은 사용하지 않지만 개념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우주의 축소판이고, 우주는 우리 몸의 거시적 우주라고 제가 앞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셨을 겁니다.

즉, 우리 몸은 현재 몸과 부활 몸 사이에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창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창조물과 새 창조물 사이에는 연속성이 있는데, 이것이 내 생각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잠시 후에 이야기할 논쟁의 한 측면을 취합니다. 오, 여기 논쟁이 있습니다. 한 가지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의 하늘과 땅을 파괴하고 새로운 하늘과 땅을 만드실 것인가요? 하지만 당신은 그가 처음에 하셨듯이 무에서 무로(ex nihilo)로 만드실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지금의 하늘과 땅을 새로운 하늘과 땅으로 바꾸실 것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관점은 베드로후서 3장에 대한 이해와 양립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베드로후서 3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톰 슈라이너의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에 대한 주석, 더그 무의 NIV 적용 주석, 제 아내는 베드로후서에 대한 주석을 좋아합니다. 가능한 곳에서는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것을 다른 구절들과 조화시킵니다. 제가 창조물의 깊고 가난한 정화라고 부르는 것으로, 실제 파괴를 수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의 재생입니다. 정화입니다.

그것은 굉장한 갱신입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의 몸, 소우주, 그리고 우주를 거시우주에 함께 넣습니다. 저는 로마서 8:18에서, 이 시대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번역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어느 것이 더 나은지 모르겠습니다. 창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물이 허무한 것에 복종한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그를 복종시키심으로, 창조물 자체가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얻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어떻게 합쳐지는지 주목하세요.

창조물의 구원은 그들이 참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에서 창조물의 인격화이며, 우리의 영광의 자유입니다. 모든 창조물이 지금까지 출산의 고통 속에서 함께 신음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모두 은혜입니다.

어머, 긴 노동이네요. 이미지를 과장하려는 건 아니에요. 창조물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누가 영의 첫 열매를 내면적으로 키웠는지 지켜봅시다.

둘은 연결되어 있다. 좋은 동사. 우주와 신자들은 연결되어 있다.

창조물이 신음합니다. 우리도 신음합니다. 조금 후에 성령께서도 우리가 아들의 입양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신음하십니다. 잠깐만요.

우리는 지금 입양되지 않았나요? 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입양이 아닌가요? 아니요. 우리는 이미 입양되었습니다. 아직 입양되지 않은 것을 아직 보지 못하셨잖아요.

하느님은 마지막 날에 당신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포용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아들의 입양과 우리 몸의 구속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보이는 소망은 그들이 보는 것을 바라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 새 땅이라는 단어는 사용 되지 않습니다. 개념은 여기에 분명히  
 있습니다.

창조물은 쇠퇴의 속박에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초반에는 더  
 이상 저주가 없을 것입니다. 지구 자체도 저주에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베드로후서의 구절을 소홀히 하고 싶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3:7, 창조와  
 홍수를 가져온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으로,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물을  
 위해 보관된 것이 아니라 불을 위해 보관되어 심판과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멸망의 날까지 보존됩니다. 그 말씀에 소멸론을 읽을 수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야 할까요? 아니요. 성경 전체를 고려해야 합니다. 한 마디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습니다. 주님은 약속을 이루는 데  
 느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느리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 참으셔서 여러분 중 누구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고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2장의 이단자들과 관련이 있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Richard  
 Bauckham의 베드로후서 주석과 비교해 보세요. 그는 그들의 구원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을 지옥에 내리고, 그들이 너무 끔찍해서 기뻐합니다. 오, 제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는 신이 신에게 보편적으로 무료로 제공한다고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증거 본문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본문도 그렇게 좋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느낌이 있다고 믿습니다.

네. 다른 주제는 다른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날은 도둑처럼 올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은 큰 소리와 함께 지나가고, 천체들은 불타고 녹아내리고, 땅과 그 위에 있는 일들은 드러날 것입니다. ESV. 어떤 사본들은 우리가 불타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파괴의 재현 관점에 정말 들어맞습니다.

그리스어는 우리가 발견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는 베드로후서 주석에서 발견됨을 가시화, 노출, 기저 요소로 축소됨의 의미로 말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거기서 저는 깊은 모공 클렌징, 뿌리까지 클렌징, 또는 그와 비슷한 것을 연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재촉하는 빛에 비추어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날로 인해 하늘이 불타고 녹아내리고, 천체가 타면서 녹아내릴 것입니다. 이것은 심판을 위한 하나님의 방문에 대한 예언적 언어처럼 들립니다. 그의 약속에 따라 우리는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Shriner의 주석과 Mu의 주석을 사용하면 기사 등을 가리킬 것입니다. 이에 대한 연구가 몇 가지 있었고, 저는 참고문헌을 허끝에 올려놓지 못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21, 21:1.

그리고 나서 나는 첫 번째 하늘 대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고, 첫 번째 땅은 사라졌고 바다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문자 그대로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다. 구약과 신약에서 바다는 격동하고 어둡고 위협적인 물의 상징으로 사용된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문자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다가 아닌가요? 네. 이건 계시록이예요, 친구야. 전개되면서 이사야 65:17의 언어가 나오고, 여기 언어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언약의 약속을 궁극적으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중간 상태에 대해 말했듯이, 그것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은 주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것은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이사야 65장, 나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현재의 지구는 새롭게 되거나 파괴되고 재창조되는가? 나는 히스기야에 동의하고, 모든 복음주의 주석가와 신학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를 말한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옳다고 생각한다. 베드로후서 3장은 어렵다.

인정합니다. 경건한 삶을 살라는 권고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칼빈의 베드로후서 3장 주석을 추천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기관에서 우리는 이 삶에 너무 집중해서 신의 영광을 놓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저 지구인일 뿐이고, 우리는 더 천상적이어야 하며, 우리가 지상에서 사는 동안 천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링을 가져야 합니다. 이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에 대한 간략한 소개로, 우리는 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Anthony Hoekema의 *The Bible in the Future* 와 그의 뛰어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장을 칭찬합니다. 이 강의를 시청하고 경청하는 데 인내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예수 교회에 대한 사랑과 우리 주이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생생한 소망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이름으로 마무리합니다. 아멘.

이것은 교회 교리와 최후의 것들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Robert A. Peterson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20, 영원한 상태, 영원한 처벌,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